

말더스(Malthus)와 그의 人口論：歷史的 再照明

李 興 卓

韓國外國語大學校 教授

<目 次>

- | | |
|----------------------|--------------|
| I. 歷史속의 말더스 | III. 말더스와 맑스 |
| II. 말더스主義와 經濟的 말더스主義 | IV. 말더스와 케인즈 |

I. 歷史속의 말더스

하루가 멀다고 밀려드는 人口學관계의 전문서적들, 저널들, 그리고 그밖의 人口關係 資料들을 뒤적이다 보면 문득 조용히 앉아 人口學이 學問으로서 걸어진 발자취를 곰곰히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마저 빼앗겨 버리는 듯한 안타까움을 불현듯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책상앞에 앉아 歷史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人口學에 공헌한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그들의 생애와 그들이 활약했던 時代狀況, 그리고 그들을 배출해낸 歷史의 흐름을 음미해 봄으로써 살아 生動하는 人類歷史속에서의 人口學을 接觸할 수 있는 것이다.

出生率, 死亡率, 合計出產率, 純再生產率 등과 같은 數量에만 집착하다보면 보다 넓은 視野로 人口學을 관찰하고 人口學 理論의 타당성 여부를 저울질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상실하게 되며, 斷片的인 知識의 습득에만 급급해지는 庸졸함을 露呈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이와 같은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Population

Studies"나 "Demography"에 게재되는 論文들을 한번쯤 일별해 본 人口學者들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人口學의 歷史를 망각한 人口學이 研究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0년 5월 27일부터 29일에 걸쳐 파리에서 프랑스의 歷史人口學會(Société de Démographie Historique)의 주관으로 말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死亡 150周期 기념학술회의¹⁾가 열렸고 또 1984년 9월 17일에서 19일에 걸쳐 英國 켄브리지 大學에서 英國人口學會(British Society for Population Studies) 주관으로 역시 말더스 150周期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Forward From Malthus: The State of Population Theory in 1984"란 主題下에 人口學 學術發表會가 열려 말더스가 활약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말더스의 "人口論"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史的 背景이 소상하게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는 1979년에 William Petersen이 말더스의 생애와 이론을 소개한 이래²⁾ 人口學을 歷史的인 側面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人口學史를 연구하는 學者들에게

1) 이 학술회의의 결과는 *Malthus; Hier et Aujourd'hui*라는 제목으로 Antoinette Fauve-Chamoux에 의해 편집되어 출판되었다(Éditions du CNRS, 1983). 이 학술회의의 훨씬 이전에, 즉 1916년 말더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京都大學에서 학술회가 개최되었었다. 이 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뿐아니라 이 회의를 주관했던 前 일본 人口學會 會長 로자부로 미나미씨는 평생을 말더스 研究에 바친 사람이다.

2) William Petersen, *Malthu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더없이 좋은 자료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本稿에서 필자는 人口學史를 다루고져 하는 意圖에서 보다는, 人口學을 가능하면 歷史的인 맥락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맬더스의 생애와 그의 “人口論”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理論의 토대를 몇몇 社會·經濟學者들의 理論과 比較, 分析하기로 한다.

人口問題가 우리들 모두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798년에 맬더스가 그의 “人口論”(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³⁾을 출판하면서 부터였다.

물론 현대 理論人口學(theoretical demography)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론은 1925년에 롯트카(Alfred J. Lotka 1880~1949)가 인간의 출산행태에 관한 수리모형(數理模型)을 그의 저서 Elements of Physical Biology에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으나⁴⁾ 식량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이루어지나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⁵⁾ 맬더스의 주장은 인구문제를 인간의 경제활동 중에서도 생산측면에서 보다는 소비측면과 결부시켜 연구할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맬더스는 인구학 분야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맬더스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활동했

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하였던가를 최근에 발간된 몇몇 참고문헌들과 그의 저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⁶⁾

맬더스의 부친 Daniel Malthus(1730~1800)는 루소(J.J. Rousseau 1712~1778), 흄(David Hume 1711~1776), 그리고 굿드윈(William Godwin 1756~1836) 등과 같은 당시의 저명한 사상가들과 친분이 두터웠을뿐 아니라 Daniel Malthus는 루소를 그의 거처인 프랑스의 모띠에(Motiers)로 방문하였으며, 루소도 Thomas Robert Malthus가 어린아이였을 때 맬더스의 출생지인 썬리(Surrey)의 우턴(Wootton)마을로 맬더스의 부친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⁷⁾

맬더스는 18살에 켄브리지대학의 Jesus College에 입학(1784)하여 수학(數學)을 전공하였으나 1788년에 성직(聖職)에 몸을 담게 되었으나 1803년 “人口論”의 두번째 판이 발간된 약 10개월 후에 맬더스 먼 사촌동생벌 되는 헤리엇·엑크슬(Harriet Eckersall)과 결혼함으로써 성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 당시 맬더스는 38살 이었고 결혼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1805년 맬더스는 당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트포트(Hertford, 후일 헤일리버리(Hailybury)로 옮겼음)에 東印度會社(East India Company)가 설립한 Service College의 역사학 및 정치경제학 교수로 부임한 후 사

3) 원래 1798년의 초판은 무명(無名)으로 출판되었었다. 대륙 내용이 수정된 재판(再版)이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란 제목으로 1803년에 출판되었고 1872년에 일곱번째 판을 거듭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역사인구학자(historical demographer)인 T.H. Hollingsworth에 의해 서문이 씌어진 1973년도 판이 있다.

4) 오늘날 롯트카의 인구학 이론은 1939년 파리에서 발간된 *Thé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란 저서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의 초기 論文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1907년에 *Science*에 게재된 “Relation Between Birth Rates and Death Rates”이다. —D. Smith, N. Keyfitz, *Mathematical Demography*, Springer-Verlag, Berlin, (1977) pp.93-95 참고.

5) 맬더스는 그의 “人口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human species would increase as the numbers, 1, 2, 4, 8, 16, 32, 64, 128, 256, and subsistence as 1, 2, 3, 4, 5, 6, 7, 8, 9. In two centuries the population would be to the means of subsistence as 256 to 9; in three centuries as 4096 to 13, and in two thousand years the difference would be almost incalculable,”

6) 여기서는 주로 William Petersen 교수의 논문 “Marx vs. Malthus: The Men and the Symbols,” *Population Review*, 1, (1957), pp.21-32와 역시 Petersen 교수의 저서 *Malthu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그리고 Patricia James, *Population Malthus: His Life and Time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1979)을 참고하였다.

7) William Petersen, *Malthus*, pp.21-22 및 John Maynard Keynes, *Essays in Biograhhy*, W.W. Norton, New York, (1951), pp.83-89 참고.

망하기까지 30년이란 긴 세월을 이 대학에서 봉직하였다. 맬더스는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영국이 격동기에 처해있을 무렵에 활동한 인물로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초기에 처해 있었을 뿐 아니라 빠리의 바스티유(the Bastille) 감옥이 무너졌을 때 맬더스는 켈브리지 대학에 fellow로 재직중이었다. 그의 나이는 윌링턴장군이나 나폴레옹보다 세살 위였다. 맬더스가 켈브리지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1793년 불탄서 빠리에서는 과격파 자코뱅(Jacobins)당이 온건파 지롱드(Girondins)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으며, 같은 해에 지롱드당(黨)의 저명인사였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가 켈석(in absentia)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면 이듬해 1794년에 과격파 당풍(Danton)이 빠리에서 처형당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격변기에 처해 있었다.

켈석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콩도르세는 이후 6개월 동안을 빠리에 은거하면서⁸⁾ 인간사회의 완전무결(perfectibility of man)함을 노래하는 그의 저서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l'Esprit Humain*을 집필하였다. 이 책에서 콩도르세는 멀지 않아 인간사회에서 죄악이나 비리(非理)는 모두 사라지고 국가, 인종 그리고 계급간의 갈등은 소멸될 것이며, 빈부의 격차, 교육이나 기회의 불균등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단일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만인평등의 평화로운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가 칩거(蟄居)하고 있던 빠리의 집 창문 밖으로 그의 동료들을 단두대로 끌고가는 요란한 마차의 바퀴소리를 들으면서도 콩도르세는 인간사회가 곧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 확신할만큼 낙관론을 제시하였다. 혁명가이자 이상주의를 표방하였던(revolutionary utopianism) 콩도르세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휘몰아 넣고 있던 프랑스 혁명은 우리 사회가 완전무결한 이상향(理想郷)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겪게되는 사회변혁의 하나라 주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개개

인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 및 인류의 행복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류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급박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인구가 갓잡을 수 없으리만큼 증가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기 이전에 그 증가속도가 자연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곧 닥아올 합리적인 이상향에 결코 인구문제란 야기되지 않으리라 예언하였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즉 콩도르세가 빠리에 은거하면서 6개월동안 지출에 몰두하고 있을 즈음, 영국에서도 이상주의자였던 콧드윈(William Godwin 1756~1836)이 콩도르세와 대동소이한 견해를 표명한 *An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를 펴내었다. 콧드윈은 극단의 이상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로 개개인은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상 무절제에서 비롯되는 급격한 인구 증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끊임없는 발전만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인간의 완전무결함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제도나 결혼제도까지도 불필요한 것이라 역설하기에 이르렀고 인간들이 지적(知的)인 일에만 열중하게되면 자연히 인구를 증가시키는 근본요인인 욕정(欲情)은 감퇴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생활만 한다면 인구문제와 같은 원초적(原初的)인 사회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따라서 콧드윈은 인구증가와 같은 순수히 생물학적인 현상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는 인간사회가 향상 발전되고 개개인 인간들이 보다 지적(知的)인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자연 해소될 것이므로 문제시할 가치조차 없다는 극단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후일 맬더스가 그의 인구론을 전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콧드윈은 먼 훗날 인간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욕정을 상실한 불사(不死)의 성자(聖者)(immortal castrati)들로 구성되리라는 이상론을 피력하여 현실주의자였던 맬더스의 주장과

8) 콩도르세는 빠리를 탈출한후 베리에르(Verrière) 숲속을 전전하다 끄라마르(Klamart) 마을 근처에서 체포되었고 그후 감옥에서 독초(stramonium)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다. 콩도르세의 최후에 대해서는 William Petersen, *Malthus*, pp. 45-42 및 William Petersen, *Population* Macmillan, New York, (1975) p. 149 참고.

정면대립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상론을 피력한 사람은 콩도르세나 굿드윈뿐 아니라 맬더스의 부친이었던 Daniel Malthus 역시⁹⁾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으로 맬더스가 1798년에 人口論(Essay)을 쓰게 된 동기도 그의 부친을 비롯한 이들 이상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한 하나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맬더스가 1803년에 人口論의 재판에서 그의 초기 이론을 대폭 수정하여 발표한 것은 맬더스가 콩도르세나 굿드윈의 이론을 철두철미하게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상주의자들의 사회불평등(social inequities)을 불식시켜보려는 간절한 욕망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었다.¹⁰⁾ 특히 맬더스는 그의 人口論 재판에서 굿드윈의 Political Justice에서 그렇게도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상향의 건설을 위한 노력의 절실함에 감명을 받아 그의 人口論 초판에서 주장하였던 인구증가에 관한 극단론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맬더스 人口論 초판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 데는 식량이 필요하며(food is necessary to the existence of man), (2) 남녀간의 욕정(慾情)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없이 지속될 것이므로(the passion between the sexes is necessary and will remain nearly in its present state) 남녀간의 욕정에서 비롯되는 인구의 증가속도는 이들 인구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인구란 방치해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이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맬더스의 주장은 굿드윈이 Political

Justice에서 강력히 주장하였던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1798년 人口論이 출판되자 곧 맬더스와 굿드윈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굿드윈은 42세로써 명성의 극치에 달해있던 저명한 사상가였으나 32세인 맬더스는 무명의 젊은이였다.

1798년 8월 20일, 그의 人口論 초판이 발간된 10주후 맬더스는 굿드윈에게 편지를 보내어 Political Justice에서 굿드윈이 표현한 인간사회의 완전무결성(perfectibility)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 3년후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 굿드윈은 맬더스의 반론을 받아들여 종전에 그가 주장하였던 극단의 이상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부터 맬더스와 굿드윈 두사람 사이에는 악의(惡意)없는 논쟁이 계속되었고¹¹⁾ 이 같은 논쟁의 결과로 맬더스도 人口論의 재판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는 달리 만혼(晩婚) 등을 통한 소극적 내지는 예방적 억제책(豫防的 抑制策, preventive check)을 통하여 양적 증가를 둔화시킬수도 있다는 굿드윈의 이론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맬더스는 人口論 초판에서 수학을 전공한 자연과학도담계 인구문제를 순수히 생물학적인 견지(biological perspective)에서만 관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인데 그후에 발간된 人口論의 재판에서는 인구문제를 순수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지 않고 보다 고차원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초판에서 그는 인구는 방치해 두면 거의 무한정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재판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결코 인구가 기하

9) Nathan Keyfitz, "Population Theory and Doctrine: A Historical Survey," William Petersen (ed.), *Radings in Population*, Macmillan, New York, (1972), p. 47.

10) William Petersen 교수는 그의 책 *Population* (third edition, 1975) p.152에서 맬더스가 굿드윈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ver his lifetime, ...Malthus moved from a biological to a sociological analysis, from principled pessimism to cautious optimism, and from a direct contradiction of Godwin to an accomodation to his criticisms."

11) 1820년, 즉 굿드윈이 65세로써 세상에서 그의 명성이 이미 잊혀져가고 있을 지음에 굿드윈은 On Population 이라는 책에서 맬더스가 예견한 인구·급성장으로 인한 문제는 결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굿드윈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앞으로 합성 내지는 가공식품(synthetic food)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해양의 무진장한 자원을 이용하던 지상에서 재배되는 식량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식량이 생산가능해질 것이고 농업의 기계화는 머지않은 장래에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출생율도 저하할 것이므로 맬더스가 우려한 인구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반론을 제기하였다. —Henry William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83), p.28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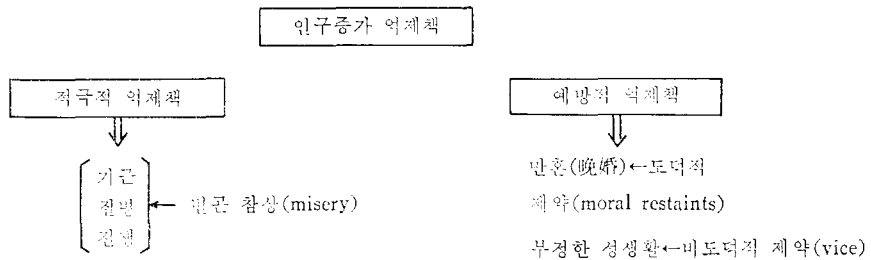
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으로써 인류 문명의 힘이 순수 생물학적인 인구증가의 힘을 능가(the power of civilization is greater than the power of population)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굿드윈이 맬더스에 미친 영향을 엿볼수가 있다. 즉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는데 반비례하여 인간의 욕정은 그만큼 감소되리라는 굿드윈의 주장이 맬더스의 人口論에 어느 정도나마 반영됨으로써 인구증가 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초판에서 맬더스는 인구증가 현상을 일반적인 자연과학의 공식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인구증가란 전쟁이나 질병, 또는 기근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소위 적극적 억제책(積極的 抑制策: positive check)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으나, 再版에서 그의 이론이 대폭 수정된 것은 바로 굿드윈이나 콩도르세 그리고 자기 부친과 같은 당시의 이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가 있다. 이같이 수정된 맬더스의 이론은 후일 다아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種의 起源”(The Origin of Species, 1859)이나 또는 다아윈의 “種의 起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社會學이론¹²⁾ 전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스펜서의 이론을 따르면 생물학에서 모든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조직들이 보다 복잡다단하게 분화되며, 조직이 분화되는 정도에 반비례하여 그 유기체의 생식능력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분화되면서 발달하므로 정신신경 계통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지적(知的) 활동이 그만큼 증가하는데 반비례하여 재생산(再生産)활동은 그만큼 감퇴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스펜서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 사람들이 하류층 사람들 보다 자녀수가 적은 것도 이같은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인간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망율과 출산율이 적정수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세계의 인구는 저정상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게 된 것도 맬더스의 人口論 재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맬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론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요약하여 보자.¹³⁾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맬더스는 인구증가를 둔화시키는 방법을 積極的 抑制策과 소극적 또는 豫防的 抑制策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적극적 억제책을 통하여 인구증가가 조절되

표 1. 맬더스의 인구증가 억제책



12) 특히 스펜서의 저서 중에서 “Synthetic Philosophy”는 맬더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다. 맬더스는 부친이었던 Daniel Malthus의 서재를 상당한 부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맬더스가 스펜서 등과 같은 후세의 사회 및 경제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현재 Cambridge대학 Jesus Colloge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The Malthus Library Catalogue; The Personal Collection of Thomas Robert Malthus at Jesus College, Cambridge*, Pergamon Press, New York (1983) (특히 John Pullen, “Introductory Remarks,” p. liv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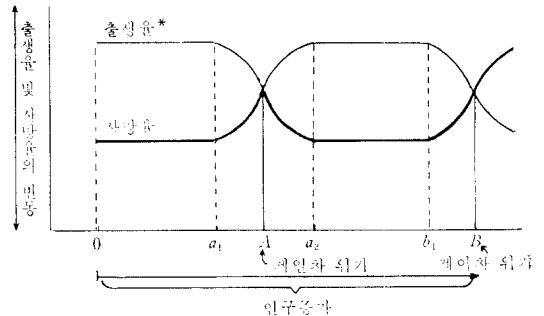
13) 맬더스 이전에 인구성장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불란서 학자들로는 Sébastien le Prestre de Vauban(1633~1707), Pierre le Pesant Bois-Guillebert(1646~1714), François de Salignac de Mothe Fénelon(1651~1715), 그리고 Richard Cantillon(1680~1734) 등이 있다.

는 것은 인간세계에서 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세계에서 보다 빈번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다.¹⁴⁾ 물론 맬더스는 그의 人口論 초판에서 인간세계에서도 인구증가억제는 오직 적극적 억제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극단론을 주장하였으나 후에 콩도르세나 굿드윈 등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여타의 동식물과는 달리 인간은 적극적 억제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적 억제책에 의해서도 인구의 증가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인함으로써 그의 초기 이론을 수정하였다. 즉, 기근(famine), 전쟁, 또는 질병(epidemic, plague)과 같은 빈곤이나 참상에 의해서만 인간세계의 인구증가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인간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혼(晩婚)이라든가 또는 혼외(婚外)의 성생활과 같이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타의 비도덕적인 방법(vice)을 통해서도 인구증가는 억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맬더스가 적극적 억제책과 예방적 억제책의 중요성을 다같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망율이 높은 후진사회일수록 예방적 억제책보다는 적극적 억제책이 인구증가 조절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사망율이 낮은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적극적 억제책보다 오히려 예방적 억제책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말함으로써 오늘날 후진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은 이들 후진사회에서 예방적 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 억제책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식량사정이 허용하는 한계에 다달을 때까지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일단 식량사정이 양호하여지면 그만큼 인구는 또 다시 증가할 것이므로 인구증가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임을 맬더스는 강조하고 있다.

일예로 표 2에서 인구증가가 식량사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인구는 식량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OA 사이에서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a_1 , A간은 O_{a_1} 에 비해서 인구의 증가

표 2. 맬더스의 위기(Malthusian precipice)¹⁵⁾



* 여기서 말하는 출생율은 birth rate가 아닌 fertility rate(출산율)의 뜻을 담고 있다.

속도가 점차 둔화되다가 A시점에 이르러 출생율과 사망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단약 제일차 위기에 직면하는 A시점에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사정이 악화된다면 사망율이 급증하게 되고 급기야는 A시점을 지나면서 인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A시점에서 단약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예를들면 인도에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으로 인하여 신품종(新品種) 벼 IR8이 개발된 것과 같은 기술혁신으로 식량증산이 이루어 진다면 a_2 사이에서 인구가 다시 서서히 증가를 할 것이며 a_2b_1 사이에 인구증가 속도는 급속히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속도를 식량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시점 b_1 에서부터 인구증가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증산이 계속되는 한계점인 B시점에 이르기까지 인구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B시점에서의 인구규모는 A시점에서의 인구규모에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비대해 있을 것이다. 물론 B시점의 인구규모가 A시점에서의 인구규모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는 AB간에 존재했던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식량증산율 가능케 하였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위기가 닥쳐오는 B시점에서 제 2의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제 2의 식량

14) "The checks to the indefinite increase of plants and irrational animals are all either positive, or, if preventive, involuntary."—*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973), p. 12.

15) E.A. Wrigley, *Population and History*, McGraw Hill, New York (1969), p. 35, p. 46.

증산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A시점에 비해 훨씬 더 증가된 B시점에서의 인구는 B시점을 지나면서 기근과 질병으로 문자 그대로 “말더스의 벼랑 밑으로 곤두박질을 할 것이다”(pushed over the Malthusian precipice) 결국 출생율의 저하와 사망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노출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인구학에서 말하는 “말더스적(的) 인구”(Malthusian population)¹⁶⁾의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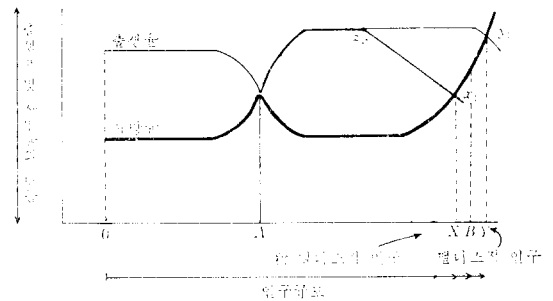
즉 말더스의 이론을 따르면 예방적 억제책을 사용하지 않는한 인구는 식량사정이 허용하는 한계점에 이를때까지 계속 증가하리라 주장함으로써 인구성장의 일반이론(universal theory of population growth)¹⁷⁾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말더스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방적 억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긴 하지만 말더스의 예방적 억제책은 만혼(晩婚)이나 혼외성생활(婚外性生活)과 같은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을 주장하였을 뿐 오늘날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결혼후의 가족계획이나 기타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말더스의 이와 같은 주장때문에 오늘날 피임약제나 피임도구 등을 사용하는 산아조절(産兒調節) 방법을 동원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주장을 원래 말더스主義(Malthusianism)와 구별하여 新말더스主義(neo-Malthusianism)라 부르고 있다. 그러던 여기서 新말더스主義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일 피임약제, 피임도구, 그리고 인공유산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아조절을 하는 경우 식량증산과 인구증가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될 것인가를 표 3을 참고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표 3에서 특히 표 2와 차이가 나는 것은 표 2에서는 출생율과 사망율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되어 왔으나 표 3의 AB구간을 표 2의 AB구간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3의 경우 출생율의 증가가 표 2 출생율 증가보다 훨씬 높기

표 3. 말더스의 인가와 新말더스의 인구의 비교



때문에 (표 3의 경우) 출생율과 사망율이 동일하였다면 인구증가가 B시점에서 중지되었을 것이나 B시점의 인구보다 훨씬 증가된 Y시점에 인구가 도달된 후에 비로소 경제상태에 이르게 됨을 알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급성장한 출생율로 말미암아 인구가 경제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격한 사망율의 증가(표 3에서 x_1 과 y_1 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극단의 말더스적(的) 인구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표 3에서 식량증산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할때까지 인구가 증가하게끔 방치하여 두어 출생율이 y_1 에 도달하기전에 식량증산 가능성에 비해 아직도 인구증가 폭이 미미한 시점 x_1 에서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가족계획을 실천하게 되면서 출생율이 x_1 에서 x_1 으로 급작스럽게 하강하게 된다면 인구는 저 출생율과 저 사망율로 말미암아 보다 적은 인구규모인 X시점에서 안정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선진 각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新말더스적 인구이며 이같은 신말더스적 인구가 오늘날 개발도상에 있는 각 사회에서 이룩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구의 유형(類型)이기도 하다.

물론 말더스 자신도 1803년에 나온 그의 人口論의 두번째 판에서 예방적 억제책의 일환으로 만혼(晩婚)을 주장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표 3에서 설명된 新말더스의 인구가 이론을 지지하고

16) “말더스적 인구”란 원래 Alfred J. Lotka가 1939년에 쓴 그의 *Thé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 (p.149)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17) J. Dennis Willigan, K.A. Lynch, *Sources and Methods of Historical Demography*,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p. 23.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는 결혼 이후에 산아조절을 위하여 피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함으로써 新멜더스主義를 반박하고 있다. 멜더스의 인구이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세계의 국가군을 두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즉 만혼과 같은 예방적 억제책을 택하고 있는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그렇지 않고 적극적 억제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타 지역의 여러 나라들로 二分함과 아울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제력(自制力)을 발휘하여 도덕적 제약(moral restraints)으로 인구의 급증을 막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예방적 억제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멜더스가 인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방적 억제책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양상이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상이할뿐 아니라 차등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만혼과 같은 예방적 억제책이나 결혼을 한후에도 자녀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을 포함한 각종의 산아조절방법을 제일먼저 택하게 되는 것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며, 이들 상류계층이 자녀수를 줄이려고 하는 근본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층 사람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워져가 아니라 상류계층의 생활에 어울리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상류층에서 누려야 할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하든지 고수하려다 보니 부득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 다음 상류층의 이와 같은 산아조절 방법을 본받아 중류층 역시 예방적 억제책과 피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들 중류층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류층 사람들에게도 중류층의 산아조절 정책이 확산되면서 소자녀관 형성이 전체사회 수준에서 이루어 지리라는 것이 멜더스의 이론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멜더스의 산아조절 확산에 관한 주장은 확고한 실증적(實證的)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단지 논리적인 하나의 추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실증적 자료가 거의 전무하였던 당시로서 이와 같은 이론을 도출해 내었다는 것은 멜더스의 사회학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의 사회계층에 따른 선별적 산아조절 확산이론은 듀몽(Arsène Dumont 1849~1902)¹⁸⁾이나 뱅크스(J.A. Banks)¹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계층별 소자녀관 형성이론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듀몽과 뱅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피임이나 기타의 산아조절은 상류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중류층에서 비롯되며, 특히 중류층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부류(upper middle class)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류층의 사람들이 산아제한을 하게 되는 근본 동기는 멜더스가 말한 것처럼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상위위 사회계층(a higher social rung), 즉 상류층으로 부상해 보고자 하는 중류계층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중류층에서의 산아제한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순전히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듀몽-뱅크스의 주장은 일단 중류계층에서 시작된 산아제한 운동은 하류계층으로 전파되는데, 하류계층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노동자층이 바로 인접 계층부류의 하위권 중류층(lower middle class)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멜더스 이론과는 대조가 된다.

II. 멜더스主義와 經濟的 멜더스主義

급증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산아조절책을 논하면서 英美지역에서 논하는 멜더스주의(Malthusianism)와 프랑스 특위의 멜더스주의(Malthusianisme) 또는 經濟的 멜더스주의(Malthusianisme économique)를 학자들

18) Arsène Dumont, *Dépopulation et Civilisation; Études Démographiques*, Lecrosnier et Babé, Paris (1890).

19) J.A. Banks, *Prosperity and Parenthood: A Study of Family Planning among the Victorian Middle Classe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54).

은 항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⁰⁾

일반적으로 맬더스주의라고 하면 식량을 포함한 자원(資源)은 제한이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구는 계속 급증하므로 이들 급성장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보다 많은 양질(良質)의 자원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인구증가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 내지는 대책을 의미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경제적 맬더스주의란 資源개발을 가능한한 억제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억제해 보고자 하는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즉, 프랑스의 경제적 맬더스주의者(malthusien)들의 주장은 가능하면 식량을 포함한 모든 자원개발을 억제하게 되면 인구증가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억제될 것이라 믿는데 반하여, 英美나 기타 지역에서 논하는 맬더스主義란 자원개발을 제한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해 보자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經濟的 맬더스主義者들에게는 자원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제한된 인구가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인데, 반대로 英美지역의 맬더스主義者들에게는 인구보다는 급증하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資源이 고갈되거나 없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한된 자원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的 맬더스주의와 맬더스주의의 차이점을 프랑스 인구학자 소비(Alfred Sauvy)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적 맬더스주의는 일종의 특이한 프랑스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수량에 대한 두려움(le malthusien redoute l'excès)을 말한다. 즉 급증하는 人口와 제한된 資源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조정(調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된 자원을 보다 적극적인 태세로 개발하여 급증

하는 인구에 대처하려는 생각보다는 가능한한 주어진 제한된 자원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소극적 방법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audacieux) 위기에 대처하기 보다는 현실 기피적인 미온적인 태도로 위기를 얼버무리려는 프랑스인의 심리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프랑스 특유의 이같은 경제적 맬더스주의를 어느 식당에서 7,8명의 다른 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영국인과 프랑스인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만약 식당에 식당주인이 먹음직스레 보이는 잘 요리된 통닭 한마리를 가져왔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제적 맬더스주의를 주장하는 프랑스인은 ‘웬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하고 목멘소리로 불평을 하겠지만, 영국인은 ‘여보, 식당주인, 이 통닭 한마리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도 없으니 빨리 통닭 몇마리 더 요리해 갖다 주시오’라고 고향을 쳤을 것이 분명하다.²¹⁾

즉 경제적 맬더스주의는 기존 활용가능한 자원까지도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둔화시키려는 일종의 경제성장 억제주의의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맬더스주의”란 말의 뜻에는 피임약제나 피임도구 등을 사용하는 산아조절책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英·美에서 사용되는 “맬더스주의”는 산아조절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과잉인구문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보다 많이 개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결코 자원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²²⁾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 주장하는 것이 英·美지역에서 통용되는 맬더스주의의 요지이다. 프랑스의 경제적 맬더스주의는 식량을 비롯한 자원은 무제한인데 이 자원을 개발한 인력, 즉 인구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英·美의 맬더스주의는 인구는 무제한 성장해 나가는데 이들이 필요로하는 자원은 제

20) Alfred Sauvy, *Théorie de la Population*, Vol. II (*Biologie Socia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54), p.159 및 Ronald Pressat, *Demographic Analysis. Methods, Results, Applications*, Aldine, Chicago (1972), p.173 참고.

21) Alfred Sauvy, *Théorie Générale de la Population*, Vol. II. (*Biologie Sociale*), p.158, “Et comme l'hôteesse apporte une volaille un peu famélique, notre malthusien de s'écrire: «Que de monde!». Le réflexe non malthusien lui eût dicté la phrase: «Cet oiseau est trop petit» ou même «apportez un second poulet».”

22) 즉 현재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과 같은 기존 자원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세분(細分)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생산성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인구의 과잉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결과로 인구는 제한되고 제한된 인구로 경제성장은 억제되며 개발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자원만이 누적될 뿐이다.

한 또는 고갈되어 있음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제적 맬더스주의자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개발해야 할 인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더욱 염려하고 있으나, 英·美의 맬더스주의자들은 끝없이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보다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경제적 맬더스주의는 듀몽(Arsén Dumont)이나 르·블레이(Frédéric Le Play, 1806~1882) 등이 주장한 사회모세관(社會毛細管) 현상과 성병 등의 만연으로 인한 불임증(不妊症, sterility)과 더불어 프랑스의 인구감소를 초래한 三大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²³⁾

Ⅲ. 맬더스와 맑스(Karl Marx, 1818~1883)

맬더스와 맑스간의 관계는 이들 두 사람이 이론적인 면에서 연결시켜 주고 있는 데이비드·리카르도(David Ricardo, 1772~1823)와 이 두 사람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政治經濟學會(Political Economy Club)와 그의 사망년도인 1834년에 창립된 統計學會(Royal Statistical Society)의 창립회원이기도 한 맬더스가 리카르도를 처음 만난 것은 1811년으로 이후 12년간 이들 두 사람은 학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1823년 리카르도가 사망당시 맬더스에게 소액이나마 생전의 두터웠던 우정의 표시로 유산을 물려줄만큼 절친한 사이였었다.²⁴⁾

그런데 리카르도와 맬더스의 이상과 같은 친

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맑스는 맬더스의 이론을 철두철미한 “부르조와” 경제학자의 외고집이라 비난하면서도 리카르도의 이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나 흥미있는 현상은 맬더스에 대한 맑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맬더스의 견해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맬더스의 이론이 리카르도의 이론보다 훨씬 맑스 자신의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비판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을뿐 아니라 맑스 자신이 그의 이론에서 맬더스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 1905년에 발간된²⁵⁾ 그의 잉여가치 이론(剩餘價值理論, *Theorien über den Mehrwert*)의 제 3권에서 맑스는 맬더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맬더스는 자본주의사회 특유의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의 모순점을 은폐하려는 데 주력을 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사회적 생산양식의 모순점을 들추어 내어 공개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왜 勞働者階級이 빈곤할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가 부분적으로 맬더스의 人口論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맬더스에 대한 맑스의 태도는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것이었다. 맑스는 맬더스를 “비열한 맬더스”(the contemptible Malthus), “지배계급에 아첨하는 파렴치한 走狗”²⁶⁾ (a shameless sycophant of the ruling classes) 등과 같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비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맬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관한 이론이란 순수히 生物學的의 決定論(biological determinism)에 근거를 둔 것으로 動植物의 세계와는 다른 인간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당

23) Joseph J. Spengler, *France Faces Depopula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79). 그러나 경제적 맬더스주의가 프랑스의 인구감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구감소가 오히려 경제적 맬더스주의를 탄생시킬수도 있었을 것이다.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1~195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4), p.72 참고.

24) Henry William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83), p. 275. 및 Kingsley Davis, “Malthus and the Theory of Population,” in Paul F. Lazarsfeld, M. Rosenberg (ed), *The Language of Social Research*, (1955) 참고.

25) Karl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Stuttgart (1905). 원래 3권으로 된 이책은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 런던의 Lawrence & Wishart 출판사에 의해서 *Theories of Surplus Value*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제 3권 pp.13-68 참고)

26) Ronald L. 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Lawrence & Wishart, London (1953).

하다는 것이다. 즉 맑스의 주장은 時空間을 초월한 어느 시대나 또는 어느 사회에서던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人口法則(law of population)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인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구문제의 해결이란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맑스가 맬더스의 이론중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맬더스가 그의 人口論에서 인구문제나 빈곤문제를 하류계층 사람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하고 있을뿐 인구증가문제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불안이 일부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의해 조작되고 있는 사회제도적인 결합에서²⁷⁾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의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맑스의 입장에서 보면 맬더스는 인간사회의 모든 악은 인간의 본성(essential nature of man)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기존의 사회구조나 제도(existing social structure or institution)에서 연유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하류계층 사람들은 그들의 본능이나 본성을 개조시키지 않는 한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맬더스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맑스는 인간의 역사란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어느 특정한 사회내에서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맬더스의 人口法則이란 인간을 제외한 動植物의 세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모든 사회에 다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人口法則이란 있을 수가 없고²⁸⁾ 단지 시대적으로 그리고 각 사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人口法則들이 있을 뿐임을 강조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빈곤문제는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맑스의 이론에 따르면 부의 균

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도래하면 인구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임을 예견하게 된다. 그는 1867년에 발간된 資本論(Das Kapital) 第一卷에서 맬더스의 이론이 각 사회의 역사성을 무시한(ahistorical) 획일적이고 지극히 추상적인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를 통하여 보면 모든 특수한 생산양식들은 그를 나름대로의 각기 다른 인구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들 법칙은 이것이 적용되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인구법칙이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서만 존재 가능할 뿐인 것이다”(Every special historic mode of production has its own special laws of population, historically valid within its limits alone. An abstract law of population exists for plants and animals only, and only in so far as far as man has not interfered with them)라고 맬더스의 인구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맬더스의 이론은 인구문제와 이에 병행하는 빈곤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a historic impossibility within capitalist society)이므로 인구증가 문제는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 주장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영속할 것임을 맬더스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맬더스의 人口論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류계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맑스의 생각이다. 인구문제는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문제이지 결코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는 될 수가 없으며 뿌루동(Pierre Joseph Proudhon, 1809~1865)이 말한 바와 같이 부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는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인구문제는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맬더스는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류층으로 하여금 부의 균분(均分)을 위한 사회제도

27) Henry William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83), p. 277 및 William Petersen, *Malthu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 78 참고.

28) 이에 관한 맑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No general law of population could be valid for all societies, each had its own law,”—Ronald L. 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Lawrence and Wishart, London (1953), p. 53에서 인용.

적인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보다는 모든 인구 증가로 야기되는 사회 불안의 책임을 오로지 국민층과 하류층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맑스와 기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의 생각이다. 즉 맬더스는 하류계층이나 빈곤층만 잘 길들이면²⁹⁾ (taming the poor) 인구의 급격한 수량적 증가로 비롯되는 제반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맑스가 주장하는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빈곤화(貧困化; Verelendung; immiseration) 이론³⁰⁾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맬더스는 당시 빈곤층에 대해 실시하고 있던 救貧法(Poor Laws)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즉 맬더스는 국민층에 구호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 국민층의 양적인 증가를 그만큼 부채질하는 것이 되며 아울러 실제 건설적인 생산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원(財源)이 구호금으로 허비되고 말 것이므로 사회 전체 수준으로 볼때 救貧法은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IV. 맬더스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맬더스의 인구학 및 경제학에 관한 이론은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맬더스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 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고³¹⁾, 1870년대에서 1930년 이전까지도 유럽 각

지역에서 인구증가 수준을 앞질러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자 인구의 증가는 빈곤을 초래하리라는 맬더스의 이론은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1885년에 보나르(James Bonar)³²⁾가 맬더스의 경제학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칠 정도로 학계나 일반의 주목을 끌지 못했었는데 1936년에 케인즈가 그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전개하면서 맬더스의 경제학 및 인구학에 관한 이론³³⁾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부터 맬더스이론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맑스가 맬더스를 전형적인 부르조아 경제학자라 격렬하게 비난한 사람이라던 케인즈는 맬더스를 리카르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제학 이론의 정립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³⁴⁾ 스위스의 경제학자였던 시스몽디(Simonde de Sismondi: 1773~1842)의 정치경제학 신강론(政治經濟學 新講論: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이 발간된지 일년후인 1820년에 나온 그의 정치경제학강론(政治經濟學講論: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맬더스는 시스몽디의 이론을 거의 답습(踏襲)하다시피³⁵⁾하여 생산 즉 공급은 곧 수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리카르도와 세이(Jean-Baptiste Say; 1767~1832)³⁶⁾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맬더스는 아담·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영국 사

29) 이기에서 길들이다 함은 하류계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晩婚을 하게함을 말한다.—K. Smith *The Malthusian Controvers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51), p. 322.

30) 맑스의 빈곤화이론(Verelendungstheorie)에 대해서는 Ernest Mandel, *Marxist Economic Theory*, Vol. I.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70), p. 150 참고.

31) J. Wolff, "The Economic Thought of T.R. Malthus," J. Dupâquier, A. Fauve-Chamoux, E. Grebenik, *Malthus Past and Present*, Academic Press, New York (1983), p. 63.

32) James Bonar, *Malthus and His Work*, London (1885).

33)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맬더스가 1820년에 펴낸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 담긴 내용을 말한다.

34) Joseph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72), p. 481. 실제로 케인즈가 맬더스의 경제학이론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은 1933년에 발간된 그의 *Essays in Biography*에서였다.

35) 이러한 이유로 맑스는 맬더스가 시스몽디의 경제학 이론을 표절하였다는 비방을 하고 있다. 시스몽디는 과잉생산(overproduction)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상품이 가치가 저하할 것이므로 수요를 도외시한 생산은 결국 경제적인 번영보다는 빈곤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Emile Durkheim, *Socialism and Saint-Simon (Le Socialisme)*, Antioch Press, Yellow Springs., (1958), pp. 78-80 참고.

36) Jean-Baptiste Say의 대표작인 *Traité sur d'Économie Politique*는 Adam Smith의 경제학 이론을 프랑스에 소개한 책이라 할만큼 Smith의 이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회를 지주계급(地主階級), 상인계급(商人階級), 그리고 노동자계급(勞動者階級)으로 삼분하였고 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계층이나 노동자계층에서 비롯되는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이들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적인 수요자들”(productive consumers) 못지 않게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비생산적인 수요자들”(unproductive consumers), 즉 중상류층 또는 상류층에 속하는 유한계급의 사치성 소비 역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맬더스의 다분히 보수주의적인 생각에 의하면 상류 봉건귀족계층들로 하여금 귀금속으로 몸을 치장하거나 또는 값비싼 미술품을 구입하고 그들 계층의 취향에 맞는 음악감상이나 무도회 등을 빈번히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들 상류계층의 소비욕구를 부채질하는 것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의 소비욕구를 부채질하여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상류층 이상의 유한계층의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소비”(unproductive consumption)에 탐닉하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이 사치성 소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바침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 매일의 식사준비나 집안청소 등과 같은 하잘것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서는 결코 이들 상류층 사람들이 사치성 소비에 탐닉하기를 바랄수 없을 것이므로 “비생산적인 수요자들”을 양산(量産)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류 특수층 사람들을 위해 매일의 식사준비나 청소를 전담해야 하는 하인들, 즉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리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적인 수요” 못지 않게 “비

생산적인 수요”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일부 특수층인 상류계층의 “비생산적인 수요”를 진작시키려면 부득이 하류층에 속하는 일반 대중이 이들 상류층을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린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맑스³⁷⁾는 맬더스의 유효수요이론을 봉건지주계급과 부르조아계급을 옹호하고 노동자계급을 도의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릇된 것이라 통박하고 있다.

그러면 맑스의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무엇때문에 맬더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극구 찬양하였던가?

맬더스의 유효수요 이론은 그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1804년에 간행된 James Maitland Lauderdale(Earl of Lauderdale)³⁸⁾의 대표작인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Origin of Public Wealth and into the Means and Causes of its Increase*에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³⁹⁾라고 주장한대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된다. 맬더스는 상품의 가치란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자본가들의 자본으로 형성되는 만큼 만약 노동자들이 상품생산에 투여한 그들 노동력(labor power)의 양(量)만큼만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가지게 된다면 이같은 노동자들의 “과소소비”(過少消費: under-consumption)⁴⁰⁾ 경향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자본가들 역시 이같은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과소소비에서 비롯되는 상품의 가치저하를 방지하고 생산활동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본가들이 최소한 그들이 상품생산에 투여한 자본량(量)만큼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류 자본가 계급뿐만 아니라 봉건귀족층이 보다 많은 하인

37) Karl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Vol. II, pp.306-307 및 William Petersen, *Malthus*, pp.93-94.

38) Maurice Dobb,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Ideology and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5), p.95.

39) Morton Paglin, *Malthus and Lauderdale: the Anti-Ricardian Tradition*, Augustus M. Kelley, Clifton (1973), p.35.

40) Patricia James, *Population Malthus; His Life and Time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9), pp.301-308.

들을 고용하고 또 값비싼 귀금속이나 비생산적인 향락에 탐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상류 귀족층이나 자본가계층이 적절한 양만큼의 소비에 탐닉하지 않고 저축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사회전반의 소비성향(消費性向: propensity to consume)은 감퇴할 것이며, 이러한 소비성향의 감퇴는 전반적인 자본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산을 위한 투자기회마저 앗아갈 위험이 있어 경제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맬더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층의 유효수요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봉건귀족층과 자본가계층의 유효수요를 유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⁴¹⁾ 유한(有閑) 상류계층의 사치성 소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더우거나 맬더스는 과소소비성향이 일어나게 되면 경제가 침체될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는 증가하는 인구를 고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토목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유효수요를 유발시켜야 한다고⁴²⁾ 함으로써 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⁴³⁾ 케인즈의 이론⁴⁴⁾과 일치하고 있다.

케인즈는 과거 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강조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만약 모든 사람

들이 맬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축과 근검절약만을 미덕으로 생각하여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도 입지 않고 먹는 음식도 푸성귀만을 먹으며 모두가 누추한 초가집에만 기거한다면, 비단옷감이나 진수성찬, 그리고 호화저택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이같은 소비의욕(消費意慾: the will to consume)의 감소는 생산력(生産力)을 저하시켜 종국에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축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덕(美德)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유해(有害)할 수도 있으므로”⁴⁵⁾ 유효수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주(地主)나 봉건귀족계층의 사치성 소비를 촉진하고 도로보수나 토목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작하여 유효수요를 야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한 맬더스의 경제학 이론은 리카르도의 이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명력이 강한 것이라 강조하면서 유효수요에 관한 맬더스의 설명을 리카르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⁴⁶⁾ 케인즈에 따르면 맬더스가 주장한 유효수요이론은 경제학에서 완전고용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이론으로써 리카르도의 우둔한 경제학 이론에 가려 맬더스가 주장한 “유효수요에 관한 풀리지 않은 숙제”(the great puzzle of effective demand)⁴⁷⁾는 이제까지 빛을 보지 못했

41) “Malthus saw that in capitalism the demand of the workers could not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capitalists to realize their profits.”—Paul Mattick, *Marx and Keynes; the Limits of the Mixed Economy*, Porter Sargent Publisher, Boston (1969), p. 11.

42) Thomas Robert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36), pp. 403-404.

43) 이와 같은 맬더스의 주장은 그가 Essay에서 주장한 인구증가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와 상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맬더스는 결코 인구증가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제반 경제사회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44)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 106 및 J.M. Keynes, Alvin H. Hansen, “Economic Progress and Declining Population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29 (March, 1939), pp. 1-15 참고.

45) John Maynard Keynes, *Essays in Biography*, W.W. Norton, New York (1951), p. 121: “...and saving, though a private virtue, had ceased to be a public duty:...”

46) John Maynard Keynes, *Essays in Biography*, (1951) pp. 117-118. “Time after time in these letters Malthus is talking plain sense, the force of which Ricardo with his head in the clouds wholly fails to comprehend. Time after time a crushing refutation by Malthus is met by a mind so completely closed that Ricardo does not even see what Malthus is saying.”

47) Paul Mattick, *Marx and Keynes; the Limits of the Mixed Economy*, Porter Sargent Publisher, Boston (1969), p. 11. 케인즈는 만약 19C 경제학의 이론이 리카르도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맬더스의 이론을 따랐다면 이 지구는 오늘날 좀더 살기좋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 맬더스를 찬양하고 있다. —John Maynard Keynes, *Essays in Biography*, p. 120 참고.

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말더스가 왜 유효수요가 감소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감소 이유를 심리학의 법칙(psychological law)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심리학의 법칙이란 개개인 인간들은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쪽이 크면 클수록 수입증가 쪽에 반비례하여 소비의 증가 폭은 감소함을 말한다.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비도 증가를 하지만 소득이 증가폭과 소비의 증가폭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생활이 안정된 부유한 사회(mature society)일수록 소비 증가폭은 소득 증가폭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소비를 권장하지 않고 만약 저축만을 강조하게 되면 소비성향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결국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므로 가능한한 소비를 권장하여 자본가들의 투자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가 투자기회의 부족(lack of investment opportunities)를 우려하였다면, 말더스는 상품의 유효수요의 감소⁴⁸⁾를 걱정한 점에서 두 사람의 견해에 차이가 있으나, 어떤던간에 적정수준에서의 인구증가는 기업의 투자기회를 증대시키며 각종의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고⁴⁹⁾ 고용측면에서도 감소하는 인구보다는 증가하는 인구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두사람의 견해에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말더스 자신은 인구증가 자체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1817년 1월 26일 리카르도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생산활동과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근본원인이 유효수요의 감소라고 지적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진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바로 적정수준의 인구증가는 경제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것임을 주장한 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말더스의 理論과 餘他の 社會 및 經濟學者들의 理論을 比較한 것을 종합해 보면, 말더스는 急進的 保守主義者(radical conservative)라는 論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만 같다. 그는 貴族이나 上流階層을 대변한 保守主義者가 아니라 上流階層이나 貴族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勞動者의 利害를 대변하던 保守主義者였던 것이다. 그는 急進主義者들을 능가하는 急進的 保守主義를 표방하는 人口學者였다.

48) William Petersen, *Malthus*, pp. 91-92.

49) Ester Boserup, *Population and 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81). p. 112.

(Abstract)

Malthus and his Population Theory: A Re-appraisal

by Hung-Tak Lee*

The "Dismal Theorem" (Essay) of Malthus is juxtaposed to the utopianism of both Marquis de Condorcet and of William Godwin who believed in the perfectibility of man and of the greater power of civilization over that of population.

The socio-political environment that gave birth to the neo-Malthusianism and of the economic Malthusianism is briefly sketched on, along with the discrepancy between the early theories (1778) of Malthus and the later Malthusian theory; namely, the biological population principles of his early period runs head-on into ^{his} the theory of effective demand and underconsumption.

Malthus belonged to both the anti-Ricardian and the Ricardian classical tradition, and his attempt to reconcile the anomalies was not very satisfactory. Karl Marx criticized Malthus for his inconsistent radical conservative theory of population and John Maynard Keynes came to the rescue of this Malthusian dilemma in the 1930's, with but a morsel of success.

*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